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MGYNREADING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순파업은 폭력, 협박, 직장 점거 같은 작위적인 행동 없이 근로자들이 노동을 멈추고 요구를 전달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파업은 근로자들의 중요한 권리지만, 모든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으로서, 단순파업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강압적 실행행사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단순파업이 사용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업무 혼란을 초래했다면 형법의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설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키려는 세력을 말한다. 대법원은 ㉠ 초기 판례에서 단순파업이 위력을 내포한다고 보아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형벌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 전원합의체 판례를 계기로 대법원은 단순파업의 위력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하나는 파업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사용자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단순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측불가능성과 심각성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최근 판례를 보면 노동권 보장을 중시하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 단순파업이 폭력적 요소 없이 사용자와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상대론은 노동법과 형법의 위법성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법에서는 행위가 적법성을 상실할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위는 단체교섭의 선행, 조합원 찬반 투표, 중재 절차 등의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법적 기준이 위반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조법 위반 등의 노동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형법은 위법성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하며, 형사책임이란 사회적 반가치성과 반사회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노동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단순파업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질서와 사회적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론에서 일치되어 있는 견해를 제외한다면 최근에는 단순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부정설은 단순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순파업의 집단적 거부는 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반사회성을 가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한편, ㉤ 조각설은 단순파업이 형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헌법상 정당성을 가진 행위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헌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이다. 이 주장은 형법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헌법적 가치인 단체행동권은 공공복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 우선성에 근거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단결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다.
- ②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작위적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강압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 ④ 사용자의 실행행사를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한 적이 있다.
- ⑤ 대법원은 초기 판례에서 단순파업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단순파업이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② ㉤은 단순파업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바깥에 있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③ ㉣은 ㉤과 달리 단순파업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실질적 위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④ ㉤은 ㉣과 달리 단순파업의 형법적 위법성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다르게 상정한다.
- ⑤ ㉣과 ㉤은 모두 단순파업이 노동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노동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관점에 반대하지 않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X물류사의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서의 근로환경 개선(냉난방 장치 설치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야간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회사 입구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며, 차량과 물류 이동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켰다. 폭력적 행동이나 직장 점거는 없었지만, 회사는 물류 운송 지연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회사는 이 집단행동이 노조법 절차를 위반한 노동법적 위법행위이며, 물류 업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여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비폭력적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위력업무방해죄 조항은 합헌이다. 공공질서 유지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존재한다.
-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형사처벌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단체행동권 보호와 형사책임 간 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예측불가능성과 심각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① 위력업무방해죄 조항을 합헌이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견해를 같이한다.
- ② 위력업무방해죄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입장을 같이한다.
- ③ 형사적 책임의 역할의 부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관점을 달리한다.
- ④ 단체행동권의 보호와 형사책임 적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입장을 달리한다.
- ⑤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견해를 달리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외는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을 설명하거나 사회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외 개념은 헤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헤겔에게서 주체는 경험적 인간이며, 술어는 국가나 제도와 같은 객체들이다. 가령 국가라는 술어는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고 보편적 이념을 실행한다. 그리하여 헤겔은 개인과 국가를 분리시킨다. 본질이 실현된 국가는 진정한 주체로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지위는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정된 제도에서 주체는 술어에 종속되며, 술어가 제도의 중심에 설정되는 그러니까 술어 자체가 주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적 기준만으로 오늘날 사회 영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헤겔의 생각은 후기 학자들에게 ㉠ 주객전도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존재, 즉 인간적 본질을 가지고 스스로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본래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체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외 개념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과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인간적 본질로서 인간은 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성과를 얻지 못하여 노동과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은 타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노동자 자신의 소유권을 잠식해 나간다. 그 결과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수록 정작 그 자신은 더 가난해진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사물계의 가치화와 인간계의 탈가치화가 정비례로 증가한다. 이러한 특징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영토인 공산주의 사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객전도 문제를 비판하는 기존의 견해는 인간적 본질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간적 본질은 사회 분석에서 더 이상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것이 물질적 관계처럼 전도되어 보인다. **실증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데올로기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의식은 생산 활동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분업이 등장하면서 물질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의식이 현실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율적 의식은 현실과 모순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소유관계를 통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사고를 지배할 경우 의식 속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나타내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는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을 위해 막스는 소외와 이데올로기 개념을 종합하여 물신주의를 내세웠다. 물신주의란 특정 사물 내지 상품이 원래 가지지 않은 힘이나 가치를 부여받는 현상을 설명한다.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자본가는 이를 착취하는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조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가질 수 있는 관계 중 하나이다. 이 관계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면 표면적인 현상 형태가 되는데 이로 인해 착취 관계가 은폐된다. 다시 말해 제3자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자본가가 이윤을 얻는 단순한 교환 관계를 목격한다. 또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사물적 형상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사

물적 속성으로 치환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환가치가 생산된 상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사물들은 시장에서 교환되는데 그 과정은 마치 사물들이 유기체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하다. 이처럼 물신주의는 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를 인물들의 사물적 관계와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드러나게 한다. 막스의 물신주의는 사회적 실천의 역할을 간과한 소외 비판 입장과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기 어려운 의식과 현실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데올로기 비판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했다고 평가받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의 자율성으로 인해 심화된 인간 사이의 지배관계를 가리킨다.
- ② 객체에 부여된 진정한 본질을 주체의 슬어보다 과소평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③ 인간적 본질이 주체 자신이 만든 객체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 ④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경시하고 객체가 주체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리킨다.
- ⑤ 주체가 가진 고유한 속성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개념을 강조하는 견해를 가리킨다.

5. 실증주의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인간은 더 이상 진정한 주체가 아니기에 인간적 본질이라는 속성은 사라진다.

ㄴ. 소유관계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착취당하는 계급의 의식 바깥에서 독립된 공간을 차지한다.

ㄷ. 교육, 언론, 문화 등을 통해 형성된 의식적 구조는 이론적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ㄱ, ㄴ, ㄷ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로, 고층 빌딩과 화려한 상점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리사는 A국가의 공장주 갑이 소유한 대형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최신 스마트폰을 조립한다. 그녀가 만든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지만 그녀의 월급은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다. 어느 날 리사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상품들은 번쩍이며 소비자에게 '나를 사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듯 보였다. 반면, B국가는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모든 생산수단이 공동의 소유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리오스는 B국가의 공동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이다. 아침이 되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으로 나가 곡식을 수확한다. 수확된 곡물은 공동 창고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곡식을 재배하고 이를 공동체와 나누는 일에서 각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

- ① A국가의 갑 회사에서 자본가인 공장주가 리사의 노동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습은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조에 대응되었군.
- ② A국가의 리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의 대부분이 자본가의 이윤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군.
- ③ A국가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회사가 상품을 파는 일,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소비자가 이러한 물건을 사는 일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조가 표면적인 현상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겠군.
- ④ B국가의 마리오스가 수확한 곡물이 공동체로 배분되는 과정은 그 곡물은 모든 사람이 협력한 결과로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기에 사물적 형상이 일으키는 기적이 발견되지 않겠군.
- ⑤ B국가의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며,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고 느끼는 것은 B국가가 소외된 노동이 극복된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북선은 조선 태종(1413) 때 최초 기록이 등장하며, 임진왜란(1592) 시 이순신 장군에 의해 실전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거북선은 19세기 후반까지 그 구조의 개조와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거북선 구조에 관한 최초의 분석은 1934년 언더우드의 논문에 의해 제시됨으로써 학술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소재로 한 소설, 드라마, 영화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거북선 실물을 구현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거북선을 실물로 구현하는 작업은 도면이나 기록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에 제작된 실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조선 태종 또는 임진왜란 당시의 실물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된 모형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물이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제작된 모형을 거북선 원본에 대한 복원이라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물 또는 실물의 일부가 있어야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원이 아니라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해석의 주관성이 반영되는 순간 복원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만 실물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거한 추정은 준 복원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1795년 규장각에서 펴낸 ‘귀선지제(龜船之制)’를 바탕으로 당시의 거북선을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시간을 거슬러 이순신 거북선을 추정했다면 그것은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을 토대로 조선 태종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은 창작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조선 후기의 거북선을 추정하기 위해 외부 형태에 관한 사료인 『이충무공전서』와 내부 공간에 관한 사료인 『양남수군변통절목』을 참조했다. 학자들은 외부 모습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시기에 발간된 『연려실기술』과 『강한집』을 참고했으며, 『양남수군변통절목』과 이후 시기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를 비교하여 사료 간 유사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했다.

조선 후기의 거북선에 관하여 학술적 논의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되자, 2층설과 ㉔ 3층설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층설은 언더우드가 제시한 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거북선의 1층이 노를 젓는 공간이고, 2층은 포혈을 통해 포를 쏘는 공간이라 주장했다. 반면에 3층설은 한국식 노와 서양식 도를 구분했다. 한국식 노는 격군이 서서 노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앉아서 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3층설은 노를 젓는 공간이 2층이고 포를 쏘는 공간은 3층이라 보았다. 2층설을 지지하는 학자 중 일부는 ㉕ 수정된 2층설을 발표하여 3층설의 논변에 대항했다. 이들은 1층을 선실이나 창고로 보았으며, 2층에는 노를 젓는 공간과 포를 쏘는 공간이 공존한다고 해석했다.

수정된 2층설의 단점은 노를 젓는 격군과 포를 쏘는 전투원이 같은 공간에 섞여 전투 중 이동과 사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동 중에는 전투원이 뒤로 물러나고, 정지 후 포를 쏘 때는 격군이 물러나야 하는 방식이다. 한편 3층 구조는 높이가 높아 무게중심이 상승하기 때문에 복원력이 취약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상정할 경우 기록

에 명시된 격군이 있는 공간에도 포혈이 뚫려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연구가 진전되면서 조선 후기 거북선에 관한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대부분 ㉖ 분할 층 구조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거북선 구조의 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포혈이 후퇴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퇴 처리된 분할 층을 통해 전투원은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적을 조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식 노와 서양식 도의 구별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격군과 전투원이 2층을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격군이 서서 물살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방식인 도를 젓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격군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배의 중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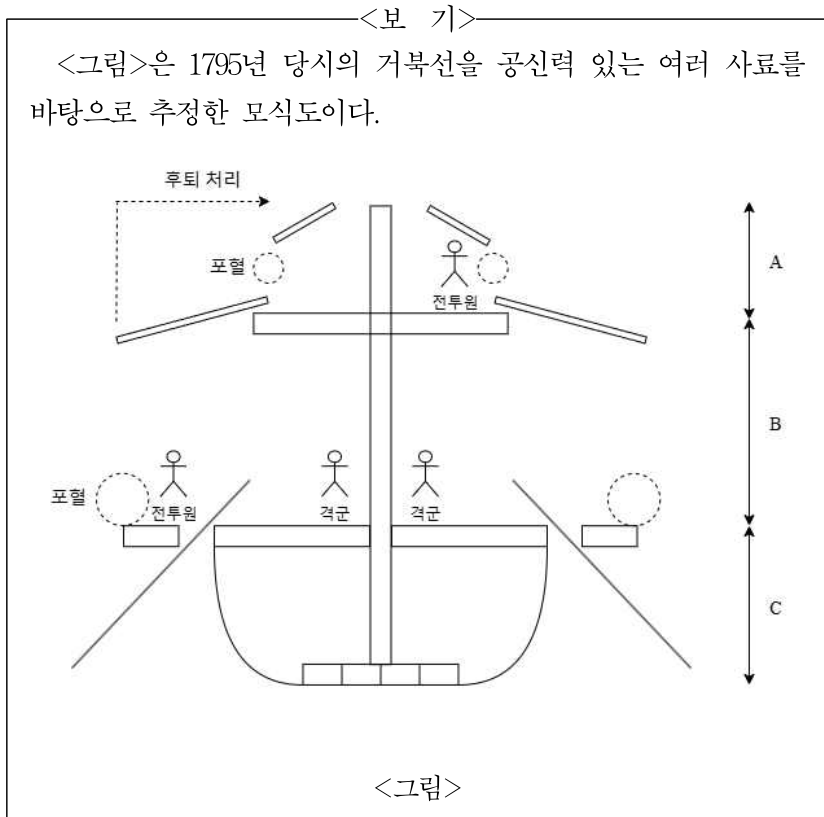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초의 거북선 실물은 조선 태종 때 발견되었다.
- ② 비상업적 목적으로 거북선이 연구되기도 한다.
- ③ 실물의 구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가 필요하다.
- ④ 언더우드는 조선 후기 거북선이 2층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
- ⑤ 학자들은 기록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상이한 시기에 편찬된 다른 기록과 비교하기도 했다.

8. 거북선을 실물로 구현하는 작업에 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물의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기록이나 도면에 근거하지 않은 구현은 복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준 복원 과정은 복원 과정의 일부로서 추정 과정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 ③ 재현은 상상력을 동원한 것과 달리 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 ④ 1795년 당시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1592년의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은 준 복원 과정에 해당한다.
- ⑤ 추정된 1592년 거북선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413년의 거북선은 창작된 것이라 볼 수 없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의 높이가 C의 높이보다 크다는 견해에 대해 ㉠은 동의하지만 ㉡는 동의하지 않겠군.
- ② A를 다른 층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해 ㉠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는 인정하겠군.
- ③ ㉠은 『이충무공전서』를 참고하여 B층에 뚫려 있는 포혈이 실제로 포를 쏘는 공간이 아닌 적군에 대해 아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군.
- ④ ㉡는 『연려실기술』과 『강한집』을 참고하여 격군들이 배의 중앙에 위치한 이유를 전투 시 전투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장할 수 있겠군.
- ⑤ ㉡는 『양남수군변통절목』을 참고하여 C층의 포혈이 B층의 포혈에 비해 후퇴 처리된 이유를 전투원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장할 수 있겠군.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이다. 가령 내 옆의 침대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다. 철학에서 공간 개념은 주로 형이상학의 토대 위에서 분석되기도 한다. 공간은 연장성과 가분성을 특징으로 가지며,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개념으로 점, 집합체, 조각체가 있고 그 외의 다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이 연장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전체 공간을 연속체로 가정했을 때 그 대상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부피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집합체와 조각체는 모두 연장성을 가지지만 조각체는 무한히 나눌 수 있는 집합체와 달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념이다. 한편 점은 조각체와 마찬가지로 가분성을 가지지 않지만 집합체와 달리 크기를 정의할 수 없기에 특정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 데카르트와 뉴턴 같은 과학자들은 공간이 연속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크기가 0인 점을 공간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여 연장된 모든 대상은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 방식은 일상적인 직관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듯 보인다. 첫 번째로 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크기를 가지지 않지만 그것의 집합이 모인 공간은 크기를 갖는다는 논리적 역설이다. 두 번째는 점으로 이루어진 두 물체는 서로 접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이다. 가령 연장된 두 고체 덩어리가 서로의 공간을 침투하지 않으면서 접촉하기 위해서는 공유 지점이 오직 한 점에서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유된 점이 존재하게 되면 둘은 하나의 물체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점에 관한 분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차원 평면에 정사각형을 나누는 경계선을 그어진 모습을 상상해보자. 정사각형과 경계선은 모두 점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어느 한쪽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나머지 영역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점과 대조적으로 집합체는 분할의 끝이 없다. 이러한 개념은 고대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주하게 된다. 그는 연장된 대상인 연속체는 무한히 나눌 수 있으며 점들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합체의 각 부분은 또 다른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패턴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정의한 집합체 개념이 연속적 공간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체가 가진 무한 분할성으로 인해 각 부분의 측정값을 합산하여 전체 크기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칸토어 구간 문제라 부른다.

칸토어 구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길이가 1인 직선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 구간 양 끝의 좌표를 각각 0과 1로 설정한 것을 [0,1]이라 하자. 이 전체 구간은 이후 여러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첫 단계는 구간의 중앙인 [0.375, 0.625]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 나뉘어진 각 구간은 제거된 구간과 겹치지 않으면서 전체 구간의 일부로서 남게 되고 각 남은 구간의 중앙 부분이 계속 제거되며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칸토어 과정이라 한다. 이때 남아 있는 구간의 모든 부분은 집합체의 성질을 만족한다. 수학적으로 전체의 크기는 서로 중첩되지 않은 부분들의 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칸토어 구간 문제에서 제거된 중앙 구간의 길이를 무한히 더하면 실제로 그 길이는 1/2로 수렴한다. 그러나 ㉢ 우리의 직관에 의하면 남아 있는 구간의 합은 1에 가까워져야 한다. 즉, 우리는 무한

히 나뉜 것^a에 대해 각 조각이 여전히 전체를 연속적으로 구성한다고 느끼기 쉽다.

이러한 측정 불가능성 문제 이외에도 집합체 개념에는 여러 난점이 존재한다. 집합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장되지 않은 점들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대안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한히 작은 부분, 즉 점을 무시하고 집합체를 정의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10. [공간]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대상의 크거나 부피가 0이면 연장성을 가질 수 없다.
- ② 공간의 일부를 연속체로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연장성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 ③ 가분성을 충족하지만 연장되지 않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집합체와 달리 점은 무한히 나눌 수 없다.
- ⑤ 가분성의 특징에 따라 집합체를 무한히 나누면 조각체가 된다.

11.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ㄱ~ㄴ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ㄱ. 화살이 공중을 날아가는 운동을 관찰해보자. 그것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 공간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한다.
- ㄴ. 현대의 원자 이론에 따르면 모든 공간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입자의 속성인 불연속성은 그러한 단위들의 모임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상속된다.
- ㄷ. 수학에서의 직관적 가법성에 의하면 0은 무한히 더해도 0이다.

- ① 화살의 궤적인 곡선이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점에서 ㉠은 ㄱ에 동의하지만 ㉡는 그렇지 않겠군.
- ② 점이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은 ㄴ에 동의하겠군.
- ③ 집합체는 점과 달리 가분성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는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ㄷ은 점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 입장을 강화하고 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의 입장을 약화하겠군.
- ⑤ ㄱ에서 날아가는 화살의 궤적의 길이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는 ㄷ을 자신의 근거로 삼겠군.

12.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실행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인간의 직관과 수학적 결과가 언제나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제거된 구간의 총합이 1/2이면 남아 있는 구간의 총합은 1/2이기 때문이다.
- ③ 칸토어 과정에서 제거된 구간 길이의 합이 실제로 1이기 때문이다.
- ④ 칸토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제거된 중앙 구간의 길이가 가장 작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 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의 수가 전체 공간을 채운다고 혼동하기 때문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인 번역은 옮기려는 언어의 쓰임을 옮겨지는 언어의 쓰임과 같게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번역의 대상인 옮기려는 언어의 쓰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언어표현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될 수는 없다. 특히 철학적 용어들은 종종 단어의 근본적 의미를 헛갈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아프리오리’(a priori)가 옮겨진 단어인 ‘선천적’은 일상 속에서 ‘타고난’, ‘생득적’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철학자들은 선천적인 것이 생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생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천이란 말은 그 반대의 뜻인 후천과 함께 주역의 문언전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선천의 천은 천시(天時) 즉 하늘의 때를 가리킨다. 하늘의 때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시간으로서 경험적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한다. 문언전에서 선천이란 하늘의 때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적’이라는 것은 경험 세계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선천적’ 개념은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시간적인 것을 포함한다. 이 중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전자는 ‘생득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시간적 의미는 철학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동양의 도법이라는 이치의 차원에서 앞선다는 뜻이다. 주희에 의하면 세계는 도(道)로부터 생성되는데 만물 생성의 근본인 이(理)와 만물 생성의 수단인 기(氣)가 이러한 천지를 구성하며, 이치상으로 이가 기에 앞선다.

‘아프리오리’는 근대에 이르러 논의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일체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식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중 그것에 의해서 경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트랜스첸덴탈’(transzendental)이라 한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이 언어를 ‘초월적’이라 번역했으나 다른 철학자들이 이를 ‘선험적’이라 명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과 ‘험’으로 구성된 선험에서 ‘선’은 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가령 선사(先史)와 선천(先天)과 같이 그 뒷말이 시간이나 시기를 가리킨다면 가리켜진 때보나 앞서서라는 뜻을 가진다. 그런데 ‘선’이 접두사로 쓰인 그 외의 경우, ‘선+X’는 시간상으로 X에 앞서서라는 뜻이 아니라 앞선 X를 말하며, 선객(先客), 선례(先例)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선+X’에서 X는 X가 가리키는 범위에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선험적’이란 그 본질이 경험적인 것으로서 ‘선천적’과 ‘초월적’ 그 어느 쪽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프리오리’와 ‘트랜스첸덴탈’에 관한 근대적 해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번역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트랜스첸덴탈’은 ‘트랜스첸덴트’와 마찬가지로 ‘높이 오르다, 넘어가다,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사상이 퍼진 이후 두 용어는 철학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트랜스첸덴탈’의 의미는 모든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에 선천적이면서도 경험 인식을 유발시키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적인 것들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트랜스첸덴트’라 일컬을 수 있다. ‘초월적’ 즉 경험에 국한된 내재적 쓰임으로서 ‘트랜스첸덴탈’과 달리 ‘트랜스첸덴트’는 ‘초경험적’, 다시 말해 초재적 쓰임으로서 ‘초험적’과 동일한 것이다.

13.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에서의 용어 체계는 복잡하기에 번역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다.
- ② ‘선천적’은 ‘트랜스첸덴탈’과 구별되지만 ‘초험적’과 바꿔쓸 수 있다.
- ③ ‘아프리오리’와 ‘선천적’ 간 관계에서 옮기려는 언어는 ‘선천적’에 해당한다.
- ④ 어떤 것이 초월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에 포함된다.
- ⑤ ‘선험적’은 ‘아프리오리’와 대체 가능하지만 ‘트랜스첸덴탈’로 번역될 수 없다.

14.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X’에서 ‘선’이 접두사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면 X는 앞선 X라는 의미를 가진다.
- ② ‘선+X’에서 ‘선’ 접두사로 쓰인 경우라도 X는 X가 나타내는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선험적’에서 ‘험’은 ‘선’이 접두사로 쓰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선 경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④ 경험보다 앞선 것이 비경험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근대적 해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번역일 수밖에 없다.
- ⑤ ‘선험적’에서 선험은 ‘선사(先史)’와는 구별되므로 경험적인 것에 포함되면서도 모든 경험 가운데 그 차례가 가장 앞선 것이다.

15.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를 바탕으로 <견해>를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으로 나타난다. 특정 개념이 나타내는 집합은 다른 집합과 여러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 집합(A)이 다른 집합(B)에 빠짐없이 속하게 되면 “B가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이때 범주 측면에서 A를 하위범주라 하고 B를 상위범주라 부른다. 이를 명제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인 것은 B이다.”는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반면 “B인 것은 A이다”는 경험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도출된다는 뜻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의미와 달리 그것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맥락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A와 B는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견 해>—

- ㄱ. 생득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을 포함한다.
 ㄴ. ‘선천적’에 포함되는 것과 ‘선험적’에 포함되는 것은 구별된다.
 ㄷ. ‘초월적’에 해당하는 것에서 ‘선천적’에 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ㄹ.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초경험적인 것은 경험적으로 도출될 뿐이다.

- ① 생득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과 구별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겠지만 ㄱ에 반대하겠군.
 ② 선험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ㄴ에 찬성하겠군,
 ③ 선천적인 것과 초시간적인 것이 구별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ㄷ에도 찬성하겠군.
 ④ 초험적인 것이 경험 세계 바깥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ㄹ에 반대하지 않겠군.
 ⑤ 만약 ㄱ을 인정할 경우, ㄷ은 수용할 수 없게 되지만 ㄹ은 여전히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겠군.

* 확인 사항

- MGYNREADING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